

# 異質經濟體制에 있어서의 經濟學方法論

朴 宇 熙\*

〈目 次〉	
I. 緒 言	V. 現代蘇聯에 있어서의 經濟分析方法
II. 經濟學方法論의 內容	VI. 東歐 및 中共에 있어서의 經濟分析方法
III. 칼 마르크스의 經濟分析方法	VII. 資本主義 經濟體制와의 比較
IV. 소련初期에 있어서의 經濟分析方法	VIII. 結 言

## I. 緒 言

韓國에 있어서의 經濟學研究方法은 그간 상당히 變貌, 發展되었다. 歐美經濟學에 관한 한 暗中摸索의 期間을 지나 이제 그 윤곽은 물론 상세한 分析道具 및 方法까지 理解하는 段階에 이르게 되었다. 물론 先進諸國과 步調를 같이 하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經濟理論을 만들어 내기까지에는 아직 오랜 時日이 길릴지 모르지만 남이 만들어 놓은 經濟學과 經濟模型의 理解와 韓國에의 適用 등은 그리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는 水準에 이미 도달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經濟學方法論의 研究는 日本을 경유한 歐美經濟學의 間接的인 輸入段階에서는 벗어났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 그 범위가 歐美의 現代經濟學에 국한되어 있고 그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또한 사실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傾向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며 歷史學派的인 接近方法이나 開發途上에 있는 經濟에서의 特殊한 經濟研究方法의 創案 등에는 손이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思料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經濟現實은 좀더 多樣한 經濟學方法論의 研究를 요구하고 있고 歐美의 現代經濟學에만 치우치지 않는 幅넓은 接近을 바라고 있다. 經濟學研究方法論은 經濟體制에 얽매이지 않는 科學的 또는 獨立的인 性格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異質經濟體制下에서의 研究分析方法을 서로 比較, 檢討해 봄도 그리 無益한 일은 아닐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우리 學界에 있어 이 분야의 研究는 不毛狀態에 있고 아직 black box로 남겨져 오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機會가 經濟學研究의 幅을 확장하는데 一助가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貿易學科 副教授

되었으면 더 이상의 多幸이 없을 것으로 思料된다.

## II. 經濟學方法論의 內容

資本主義經濟와 社會主義經濟에서의 經濟學研究가 어떻게 다르며 또 어떤 면에서 類似한가를 비교,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經濟學方法論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經濟體制 자체가 상이하기 때문에 分析의 方向과 內容도 얼마간은 서로 다르기 마련이므로 그 뜻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서는 처음부터 混沌만을 낳을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슘페터에 의하면, 經濟分析方法(the techniques of economic analysis)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가 포함되어 있다.<sup>(1)</sup>

- (1) 經濟史 (Economic History)
- (2) 理論 (Theory)
- (3) 政治經濟學 (Political Economy)
- (4) 統計學 (Statistics)
- (5) 經濟社會學 (Economic Sociology)
- (6) 應用分野 (Applied Fields)에서의 技法

이러한 分類에 數學(Mathematics)과 計量經濟學(Econometrics) 등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나 여하튼 이러한 여러 方法은 예나 지금이나 또 장소에 따라서도 변함이 없을 것이고 여기서 더 이상의 詳細한 설명은 불필요할 것이다. 더우기 이 모든 經濟學分析道具는 模型定立이란 면에서 共通點을 지니고 있고, 비록 數量化나 精緻性에 있어 差異가 있기는 하나 社會經濟現象 속에 內在되어 있는 “inner logic”을 科學적으로 把握하고자 하는 의도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다. 즉 經濟學이란 物+人을 취급하는 學問이라 할 수 있고, 物의 運動이 지배적이면 數量的인 方法이, 人의 運動이 지배적이면 非數量的인 方法이 더 適用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 經濟現實속의 「法則」(laws)과 「傾向」(tendencies)을 찾거나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마찬가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케네, 스미드를 위시해서 마르크스, 마아샬, 슘페터를 거쳐 뒤르달, 사뮤엘슨, 애로우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經濟學者의 分析方法이 여러가지 형태로 제시되고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의 模型定立이란 면에서는 同一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어디에서 異質經濟體制下에서의 經濟學分析方法的 差異와 類似點을 찾

(1) J. A. Schumpeter, *History of Economic Analysis*, 1952, pp.12-24.

을 수 있을 것인가. 먼저 共產主義經濟理論의 創始者인 마르크스의 研究方法을 음미하는 데서부터 시작해 보자.

### III. 칼 마르크스의 經濟分析方法

마르크스模型의 시발점은 資本家階級과 勞動者階級間的 社會經濟的 實物生産關係라 할 수 있다. 이 관계가 소위 不勞所得(uneared income)과 資本蓄積의 可能性을 야기시키고 이 蓄積이 다시 技術革新을 가져옴과 동시에 資本—勞動이 서로 動態的으로 交互作用하면서 資本主義經濟構造를 변모시킨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이 마르크스가 資本主義的 經濟發展을 본 「비전」이었으며 이 비전을 바탕으로 그가 본 資本主義經濟의 諸特性—利潤率低下, 勞動者의 隸屬과 貧困, 經濟的 不安定, 產業構造의 메카니즘化, 獨寡占, 產業豫備軍의 增加—을 도출해 내었다. 이러한 여러 資本主義經濟의 소위 必然的인 現象은 마르크스에게 經濟分析道 具를 새로이 만들어 내기 以前의 「問題의 데이터」로 간주되었고 經濟變動過程에 관한 이러한 비전을 바탕으로 마르크스는 다시 經濟分析의 「一般的」인 方法을 제시하였다. 마르크스는 먼저 여러 社會關係에서 「生産關係」를 가장 重要한 關係로 보았으며, 여기서 商品生産 制度가 어떻게 資本主義經濟로 변모하였으며 階級間的 갈등을 낳고 社會勞動의 生産性을 향상시켜 결국 資本主義經濟의 필연적인 崩壞를 가져오는가를 분석하는 가장 基本的인 關係로 생각하였다.

둘째, 이러한 方法論의 틀 속에서 마르크스는 아주 特異한(idiosyncratic) 方法論을 발전시켰다. 즉 헤겔研究의 結果로 나타난 「論理的一歷史的」方法이 그것이다. 이 方法은 간혹 과도하게 이용된 면도 없지 않았지만 그의 價値論에서 특히 有用하게 사용되었다.<sup>(2)</sup> 이 點은 후에 다시 詳論할 것이다.

그의 세번째 方法論은 앞의 두 가지 方法論과 밀접히 연관된 것이지만 資本主義를 生産關係로 분석하려 할 때 가장 좋은 方法은 資本主義를 資本과 土地所有者가 없는 前資本主義社會와 구분하여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換言하면 비록 商品生産과 自由競爭이 支配的인 社會를 想定한다 해도 勞動者가 勞動의 生産物을 전부 所有하는 社會에서부터 분석을 시작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社會에서의 生産, 交換, 分配를 지배하는 單純法則을 조사한 다음 資本主義經濟에 메스를 가한다는 것이었고 마르크스에 의하면 이렇게 분석해야만 資本主義的 生産經濟의 核心을 露出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方法을 채택하는

(2) K. Marx, *Capital*, Vol. I, Lawrence and Wishart, 1969, pp.19-20.

데는 스미드와 리카아도가 만들어 놓은 傳統的인 分析技法을 사용하였음은 물론이다. 「單純」商品生産에 바탕을 둔 抽象的인 마르크스의 前資本主義社會는 스미드가 상정한 사슴과 사냥꾼만이 사는 「初期原始」(early and rude)社會와 별 다를 것이 없는 것이었다. 마르크스나 스미드의 경우 어느 것이든 歷史的으로 實存했던 社會를 정확히 묘사했던 것은 아니었고 또 過去의 理想的이거나 黃金期の 社會를 그리려 했던 것은 더욱 아니었다. 이러한 方法은 복잡한 分析道具의 한 部分이었으며 그 당시로서는 아주 有用했던 方法中的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고, 마르크스의 神話(myth)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神話學的 方法論(mythodology)에 불과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sup>(3)</sup>

이 세 가지가 마르크스가 사용한 經濟分析의 「一般的」方法의 내용이고 이 方法에 따라 다른 道具(tool)와 技法(technique)이 채택, 개발되었다. 이 중 어떤 技法, 예를 들어 均衡概念과 社會階級の 分類, 階級間的 所得 등은 그의 先輩經濟學者에게서 배운 것이었으며, 다른 것, 예를 들어 抽象的 勞動과 具體的 勞動, 勞動과 勞動力(labour power), 不變資本(invariable capital)과 可變資本(variable capital) 등의 區分은 그의 獨創的인 것이었다. 분석을 해나가는 동안 다른 概念과 關係(relations) 및 技法이 개발되었고 이 중 중요한 것으로서는 剩餘價值概念, 相對的 및 絕對的 剩餘價值的 區分, 剩餘價值率과 利潤率 및 資本의 構成要素를 대표하는 比率과 특히 再生產構造와 연관된 여러 技法이 새로 만들어졌다.

分析의 結果(results)와 分析의 方法 및 道具(methods and tools)를 구분할 수 있다면 이것들이 마르크스가 經濟現實을 분석하는데 사용한 가장 중요한 方法과 道具였다고 할 수 있다. 經濟現實속에서 찾을 수 있는 齊一性과 規則性(uniformities and regularities)을 이러한 方法과 道具의 도움으로 生産關係란 側面에서 분석하였고 法則과 傾向의 形態로 未來豫測에까지 구체적으로 擴張하였던 것이다.

마르크스의 「一般」經濟方法중 특히 論理的 歷史的 技法이 가장 잘 適用된 부분이 『資本論』에 상술된 價值論이라 할 수 있다. 그의 價值分析에서 마르크스는 商品의 單純生産에서 시작하여 論理的이며 歷史的으로 보아 第2次的 形態인 「資本主義的으로 修正된 商品」을 분석하였다. 그의 價值分析은 따라서 抽象的인 前資本主義社會에서 生産關係가 商品의 價格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출발하여 이후 初期資本主義(early capitalism)에서 成熟資本主義(developed capitalism)로 발전되는 동안 資本主義的 生産關係에서 價格과 生産關係가 어떻게 변모되는가로 고도화되었다.

마르크스의 「論理的」출발점은 商品關係 그 자체이고 그의 「歷史的」출발점은 抽象的 前

(3) R.L. Meek, *Economics and Ideology and Other Essays*, Chapman and Hall, 1967, pp.93-106.

資本主義社會였다. 이 사회에서는 商品은 다른 商品과 交換能力을 갖게 되고(交換價值 또는 價格) 이 때의 論理的인 基本課題는 이러한 價格의 「決定」이었다. 마르크스에게는 이러한 價格은 生産關係에서 形成되어야 하고 또 非數量的이고 數量的인(qualitative and quantitative) 두가지 側面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非數量的인 解決方法은 商品은 도대체 價格을 가져야 하느냐 하는 質問으로 연결되고 數量的인 解決方法은 商品은 왜 特定한 價格을 가져야 하느냐라는 質問으로 연결되었다.

마르크스는 이와 같이 經濟史, 社會學과 經濟學을 ménage à trois의 방법으로 엮고난 뒤 곧 分析의 第2次的인 論理段階(second logical stage)로 나아갔다. 즉 資本主義社會에서의 均衡價格(體화된 勞動量에 比例), 利潤, 賃金, 剩餘價值, 資本蓄積, 明白한 矛盾(apparent contradiction) 등을 분석하였다. 마르크스는 여기서 非數量的인 作業에 만족하지 않고 數量的인 作業으로 들어갔고 그 結果 발달된 資本主義經濟下에서는 「社會에서 生産되는 모든 商品의 生産價格의 합은 그 商品價格의 합과 같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sup>(4)</sup> 이와 아울러 體화된 勞動(embodied labour)과 個別均衡價格間에 중요한 函數關係를 보여주는 다음 式을 얻게 되었다.

$$\text{商品價格} = c + v + \frac{c+v}{\sum(c+v)} (\sum s)$$

여기서  $c$  = 使用된 機械와 原資材의 價値

$v$  = 勞動力(labour power)의 價値

$s$  = 剩餘價値

$\sum(c+v)$  = 全經濟에 投入된 資本의 總量

이 公式은 個別商品의 價格에 포함된 利潤은 全經濟가 生産한 總剩餘價値의 比例의 分配分, 즉 이중 比例의이란 관계企業이 쓴 資本總量과 全經濟가 쓴 資本總量의 比率에 의해 결정되는 分配分을 표시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그의 價値理論에 있어 社會學, 經濟史, 經濟學과 哲學에 관한 基本的인 아이디어를 특별한 方法으로 종합하였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價値論은 價格이 어떻게 決定되는가를 설명하는 단순한 理論이 아니고, 經濟學이 특별히 깊이 연구되어야 하나 다른 社會科學과의 종합도 잘 되어야 한다는 見解를 포함한 하나의 方法論的 宣言(methodological manifesto)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接近方法은 스미드 이후 잘 지켜져 왔으나 리카아도에 와서 이를 따르는 소위 비천한(vulgar) 經濟學者에 의해 파괴되고, 相對價格의 決定에 있어서도 歷史的이고 社會經濟的인 要素를 무시하는 너무 單純化된 需要供給曲線만

(4) Marx, *Capital*, Vol. III, 1954—9, p.157.

을 사용하게 되는 경향이 농후하게 되었다고 마르크스는 비난하였다.

마르크스는 既存의 經濟理論과 分析方法을 다음과 같이 分類하고 여기서 자기가 내세운 方法만이 가장 科學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sup>(5)</sup>

- (1) 古典的 政治經濟學(Classical Political Economy)
- (2) 「皮相的 經濟關係」의 經濟學(The Economics of 'Surface Economic Relations')
- (3) 마르크스主義 政治經濟學(Marxian Political Economy)
- (4) 「諸說混合」經濟學('Syncretic' Economics)
- (5) 「卑賤」社會主義('Vulgar' Socialism)
- (6) 經濟的 辯證論(Economic 'Apologetics')

後期마르크스主義者(Fost-Marxian)들은 여기에

- (7) 社會主義的 辯證論(Socialist 'Apologetics')을 첨가하고 있다.

「諸說混合」經濟學이란 부르조아의 古典政治經濟學의 原理를 프로레타리아의 主張과 融合시키려는 것으로 해석하며, 「卑賤」社會主義는 古典的 政治經濟學이나 마르크스主義的 政治經濟學의 科學的 發見에 기초를 두지 않은 計劃을 변호하는 社會主義를 가리키고, 經濟的 辯證論은 資本主義社會內的 여러 階級과 團體의 利益을 특별히 옹호하는 經濟學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6가지 分類중 마르크스는 (3)의 마르크스主義的 政治經濟學을 資本主義下의 經濟關係를 성공적으로 非神秘化(demystify)한 가장 科學的인 學問으로 보아 제일 높게 評價하고 부르조아 辯證論(bourgeois apologetics)을 資本家의 利益을 위해 科學을 의도적으로 잘못되게 한 것으로 보아 가장 낮게 評價하였다. 이러한 마르크스의 分類를 經濟分析方法과 인관시켜 해석해 보면 既存經濟理論중 (2), (4), (5), (6)의 方法은 邪惡視되었고 단 (1)의 古典的 政治經濟學중 一部門만 收容하였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마르크스도 사뮤엘슨 등 現代經濟學者에 의해 「小後期리카아도學派」(a minor post-Ricardian)와 왈라스 以前の 初期的 一般均衡理論家(an embryonic general equilibrium theorist in advance of Léon Walras)로 烙印적反批判받고 있음은 물론이다.<sup>(6)</sup>

(5) A. Bose, *Marxian and Post-Marxian Political Economy: An Introduction*, Penguin Books, 1975, pp.286—300.

(6) P.A. Samuelson, "Marxian Economics as Economics," *Papers and Proceedings, 79th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San Francisco, 27—29, December 1966,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7, pp.616—23.

## IV. 소련初期에 있어서의 經濟分析方法

마르크스 자신은 그가 構想했던 社會主義나 共產主義經濟의 運用法(modus operandi)을 서술하지 않았다. 그의 理論은 어디까지나 資本主義經濟자체의 分析이며, 단지 資本主義經濟를 분석함으로써 「不可避한 崩壞」나 「프로레타리아獨裁」를 통해 社會主義經濟가 到來할 것을 예언함에 그쳤다. 마르크스經濟學은 따라서 이 線에서 완전히 끝나고 社會主義經濟의 理論에 관해서는 전혀 言及이 없었다. 그의 弟子들도 문제를 풀어나가려 하지 않고 피하는데 그쳤고, 이 중 카우츠키(K.J. Kautsky)만이 社會主義는 暫定的으로 既存資本主義의 價格體系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약간의 言及을 하였을 뿐이었다.

소련政府가 들어서고 난 뒤 스탈린治下의 러시아經濟學은 反政府나 中立論者까지도 무자비하게 處刑되었기 때문에 科學的인 研究까지 제한되었고 따라서 「經濟法則」이나 經濟分析의 必要性마저도 政治優先의 위협에 눌려 인정되지 못하였다.<sup>(7)</sup>

그러나 부하린(N.I. Bukharin)이 주동이 되어 차츰 分析的인 研究가 싹트기 시작하였고 마르크스-엥겔스研究所(Marx-Engels Institute)에서의 學問的인 研究와 農業經濟學 및 景氣循環論 등에서 資料蒐集과 이들의 解釋에 自由로운 분위기가 造成되기 시작하였다. 이중 콘드라티에프의 景氣循環論은 큰 파문을 일으켰고 Perwuschin, Oparin, Sokolnikoff 등이 經濟分析에 있어 特有的인 業績을 쌓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또 後退하였고 소련經濟研究所의 活動이나 教授도 모두 소련政府의 實證問題를 叙述하는데 그쳤으며 生命의 威脅 때문에 學問的인 위축을 불면케 되었다.<sup>(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에 있어서의 經濟分析方法이 발달할 조짐이 엿보이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 이유의 첫째는, 소련은 옛부터 統計的 및 數學的 方法—주로 確率論—의 훌륭한 傳統을 지니고 있었고 이러한 方法은 經濟學보다 政治的인 壓力을 덜 받았으므로 國際的으로 認定될 수 있을 정도의 公認이 나타났었기 때문이었다. 둘째, 社會主義體制經濟에서는 아무리 粗雜하다 하더라도 어느 水準 이상의 投資計劃이 없을 수 없으며 자연히 價值, 限界生産性, 利子 등의 概念이 論理的으로 定立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스탈린治下의 소련經濟學者의 任務는 이러한 概念을 발전시키기보다는 「資本主義的」인 概念과

(7) A. Zauberman, "Economic Thought in the Soviet Union,"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XIV, 1948—49, and Vol. XVI, 1949—50.

(8) C. Landauer, "From Marx to Menger," *American Economic Review*, June 1944.

의 根本的인 一致性을 숨기면서 소련內로 導入하는데 그치고 있었다.<sup>(9)</sup> 볼셰비크經濟學者도 결국은 파레토와 바로네가 半世紀前에 이미 간파한 바와 같이 資本主義經濟에만 특유한 經濟論理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특히 國民所得會計(national income accounting)나 豫算技法(budgeting techniques) 등은 어떤 體制下에서도 共用될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投資의 相對的 效率係數(the coefficient of relative effectiveness of investment)가 널리 인용되었다던가, 經濟理論이란 「社會主義的인 組織社會의 合理的인 經營規範에 관한 科學」(the science of the norms of rational management of a socialist "organized" society)이라고 定義하면서도 同一한 경향을 엿볼 수 있었고, 其實 위와 같은 分析技法은 소련과 같은 社會에서 더욱 有用하게 사용되었었다.

끝으로 留意할 것은 레닌, 트로츠키 및 스탈린이 專門的인 經濟學 및 經濟分析方法에 關連된 것까지에도 言及, 상당한 分量의 글을 發表하였으나 經濟分析에 關한 그들의 功헌은 미미한 것이었고 오히려 政治經濟와의 混合속에서 소련經濟學의 不毛性을 높이는 結果를 가져왔을 뿐이었다는 點이다.<sup>(10)</sup>

## V. 現代소련에 있어서의 經濟分析方法

1920年代는 소련經濟學에 있어 매우 흥미있는 期間이었다. 建設的이고 獨創的인 科學的研究가 開發經濟學(development economics) 분야에 특히 많이 進행되었다. 이러한 활발한 研究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얼마동안 잠잠했다가 1960—70年代에 와서 다시 재흥되었다. 初期中 역시 數理經濟學은 研究와 經濟計劃上의 必要때문에 상당히 기도되었으며 그 당시로서는 다른 經濟學과 比較해 보아 상대적으로 발달된 편이었다 할 수 있었다. 이때 펠드만의 經濟計劃模型이 널리 알려졌었고 슬루츠키(E. Slutsky), 코뉘스(Konüs)와 다른 몇명의 소련經濟學도 西方世界에 어느 정도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1950年末부터 1960年代初에 들어와서야 겨우 科學으로서의 經濟學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고 특히 數理經濟學과 統計的 技法 및 기타 現代的 컴퓨터技法이 缺에 없이 大規模的으로 運用되기에 이르렀다. 이중 산만한 것도 많았지만 西方經濟學과 比較해 봐서도 價値있고 獨創的인 功헌이 크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sup>(11)</sup>

(9) H. Hunter, "The Planning of Investments in the Soviet Union,"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February 1949.

(10) Schumpeter, *op. cit.*, p.1159.

(11) L. Johansen, "L.V. Kantorovich's Contribution to Economics,"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1976, p.61.



이러한 經濟學復興期間중 가장 활발히 활동했던 사람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고 모두 經濟學 이외의 분야를 專攻했던 學者들이었다. 따라서 相異한 經濟學接近方法이 試圖되었고 이들은 一定한 方向없이 散在된 연구업적을 산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비교적 나이 든 世代에 속하는 학자로서 Kantorovich, Nemchinov와 Novozhilov 등이 있었고 이들이 소련 經濟學의 계속성과 전통을 지켜왔으며 이들의 공헌이 1965년에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소련에서 가장 큰 자랑인 레닌賞을 수상하게 되었다. 그 때 이 賞을 받은 사람은 經濟學者들 뿐이었다.

지금은 이 세사람중 가장 젊은 Kantorovich만 살아 있고 科學的인 見地에서 이 학자가 가장 뛰어났었다. 그의 공헌은 소련內에서는 물론 國際的인 水準으로 봐서도 가장 우수하며 獨創的이었고 이러한 공헌으로 1975년에 노오벨 經濟學賞을 수상하게 되었다.

Kantorovich는 數學을 전공하였고 學位論文과 1949년의 스탈린賞도 數學에서의 공적 때문이었다. 母校인 레닌그라드大學에서 數學을 강의하였으며 1965年度 레닌賞을 받았을 때에는 經濟科學 특히 經濟學研究와 經濟計劃에 대한 數學의 方法의 應用때문이었다. 물론 1940年代부터 數理經濟學分野에 몰두하였고 價格制度, 經濟計劃과 經濟計算方法論에 많은 論文을 발표하였으며 소련 經濟學의 독진성을 신랄히 批評하기도 하였다.

1960—70年代에 들어 소련內에 數理統計的인 分析技法이 특히 널리 이용되게 되었다. 數學的인 심볼과 方法이 마르크스 經濟學에서도 쓰여지고는 있었지만 그때는 간단한 것이었고 지금은 高度의 컴퓨터까지 動員되는 정치성을 엿볼 수 있게 되었다. 資本主義經濟에서 보다 오히려 社會主義的 計劃經濟下에서 經濟數學과 統計學은 정밀성을 더 크게 요구하고 있고 現代數學과 統計科學의 特殊技法까지도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社會主義計劃經濟下에서는 지금까지 資本主義經濟學者들이 數學을 많이 이용했다는 偏見때문에 또 數學자체의 論理가 社會主義經濟內部的 經濟論理에 잘 맞지 않을 것이라는 偏見때문에 그 使用이 크게 制限되어 왔었다. 資本主義經濟에서의 數學應用과는 달리 社會主義經濟에서는 數學的인 分析이나 模型定立이 마르크스의 經濟分析方法과 길을 같이 해야 한다든가, 즉 辨證法, 研究의 目的의 特性, 生産關係의 社會的인 分析, 實物生産의 重要性和 勞動價値說의 認定이란 들 속에서 擯해지지 않으면 안되며 社會主義經濟의 發達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制約性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經濟計劃은 社會主義經濟現實과 부합되어야 하고 內在된 經濟法則과 一致되면서 數學的으로 模型化되어야 되었다.

Kantorovich의 研究에서 알 수 있는 마와 같이 現代소련에서의 經濟分析方法중 數學的인 援用은 個別企業의 資源의 效率的인 利用, 資源配分의 效率條件, 合理的인 價格制度(靜態的인 動

態的)와의 聯關性, 投資基準으로서의 計算利率(uniform accounting interest rate)計測 등에 크게 두드러졌다. 經濟計劃에 있어서의 線型計劃利用은 生産要素의 潛在價格 決定에 필수적이었고 이러한 線型計劃은 최근에 이르러 非線型計劃으로까지 발전하여 初期의 個別企業에 국한되었던 單純한 生産計劃을 全面的인 一般線型計劃(the general linear programming)으로까지 확대하였다. 計測方法(computational methods)에 있어서도 resolving multiplier (古典的 Lagrangean multiplier를 변형)등이 活用되었고, 輸送最適問題도 數學的으로 다루어져 消費場所와 生産場所를 組合함으로써 總輸送費를 最少로 하는 方案을 강구하기도 하였다.

소련의 現代數理經濟學은 個別企業이나 最適輸送計劃 및 地域化라는 微視的 水準에서 이제는 社會主義經濟全般을 最適化하여 資源利用의 效率을 向上시키는 데까지 이끌어가고 있으며, 重化學工業에 있어서의 投資基準을 제시하는 등 線型計劃方法으로 商品과 生産要素의 潛在價格을 찾아내는 水準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國家經濟計劃과 價格體制의 論議는 다음 후에서 상술될 것이다.

## VI. 東歐 및 中共에 있어서의 經濟分析方法

구테어 분류한다면 소련의 經濟를 共產主義體制(communism), 東歐諸國의 經濟를 社會主義體制(socialism) 또는 集産主義體制(collectivism)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古典的인 定義에 따르면 社會主義나 集産主義는 生産만 社會化 또는 國有化하는 制度이며 共產主義는 生産과 消費 모두 社會化하는 體制라 할 수 있고 後者는 社會主義보다 더 中央集權化(centralized system)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12)</sup> 東歐經濟중에서는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에서는 生産手段이 모두 國有化된 것이 아니고 農民, 藝術家, 小規模企業들이 私有하는 生産手段도 많이 存在하고 있다.

社會主義體制下에서는 制度的으로 보아 消費財와 勞動用役에 관한 市場이 存在하나 資本財市場이나 勞動以外的 生産要素市場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資本財와 勞動이외의 生産要素價格은 一般化된 의미에서의 價格에 불과하며 計算目的(accounting purposes)으로 固定된 代替物의 단순한 指數에 불과하다.

이러한 體制下에서의 經濟的 均衡의 決定은 個人(消費 및 勞動主體)과 生産管理人이 決

(12) O. Lange, *On the Economic Theory of Socialism*,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38, pp. 72-98.

定하고, 價格(市場價格이든 計算價格이든 간에)은 商品의 需要・供給에 따라 決定된다는 點에서 資本主義體制와 別다른 것이 없고, 단 勞動이외의 生産要素가 公有化되어 있으므로 消費者의 所得이 이러한 生産要素의 所有者와 구별되고 社會組織이 「所得形成原則」에 따라 決定된다는 點만이 다를 뿐이다.<sup>(13)</sup>

社會主義經濟에서의 均衡價格의 決定은 自由競爭市場에서의 유사하고 中央計劃局(The Central Planning Board)이 市場役割을 대신 수행할 뿐이다. 여기서는 市場의 機能을 計劃의 機能이 代替하게 되며 현재는 랑게의 말과 같이, 電子컴퓨터(digital 혹은 analog)와 市場이 다 같이 經濟計劃에 쓰여지고 있고 社會主義經濟體制下에서의 經濟的 均衡條件(파레토와 바르네의 聯立方程式上)을 풀어내주고 있다.

Kantorovich의 소위 ‘O.O.O.s’(客觀적으로 決定된 價値를 뜻하는 러시아語의 이니셜)와 소련中央經濟數學研究所(Ts EMI)所長인 Fedorenko의 「부르조아限界主義論者」(bourgeois marginalism)비방의 배척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數百萬의 商品과 數十萬의 生産者를 포괄하는 經濟計劃에서는 「市場社會主義」(market socialism)이나 「社會主義的 市場」(socialist market)의 解決方案이 헝가리, 체코 등 東歐에서 특히 많이 쓰여지고 있다.<sup>(14)</sup>

헝가리와 소련의 경우를 對比해 보면 대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 헝 가 리                                          | 소 련                                            |
|------------------------------------------------|------------------------------------------------|
| (1) 生産량과 投入量은 企業이 자유로이 定해야 한다.                 | (1) 市場社會主義는 社會主義的 經營原則에  위배된다.                 |
| (2) 價格이 需要供給을 均衡시키고 競爭은 能率을 向上시킨다.             | (2) 市場價格은 中央集權的 計劃과  상반된다. 價格機能에 대한 信奉은 옳지 않다. |
| (3) 國內生産品과 輸入品の 購入과 商品의 國內 및 海外市場販賣는 自由로와야 한다. | (3) 外國貿易省을 통하지 않는 國際市場에서의 商行爲는 용납될 수 없다.       |

위의 表는 헝가리에서의 經濟改革의 方向을 제시한 것이며, 第2次大戰후 스탈린式의 中央集權的 計劃模型을 채택했을 때와 비교하면 큰 差異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지금은 소련模型을 복사하는 式의 經濟計劃을 그대로 채택하는 東歐는 거의 없고 나라의 크기, 傳統, 賦存資源에 비추어 상당한 修正을 가하고 있고 따라서 東歐에서의 經濟分析方法은 소련과 西歐의 中間型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東歐의 共產主義指向에 어긋나는 것으로 봐서는 안되며 教科書的 共產主義에 소위 능률적으로 접근하는 하나의 방안

(13) *Ibid.*

(14) A. Nove, "Economic Reforms in the USSR and Hungary, a Study in Contrasts," *Socialist Economics*, 1972, pp.335—362.

으로 생각함이 옳을 것이다.

中共의 경우는 어떠한가. 社會主義經濟計劃의 주된 內容은 「주어진」 資源의 效率의 配分에 관한 것이나 中共經濟模型의 특징은 經濟目的에 대한 人間適應의 重要性의 인식과 「숨겨져」있는 經濟資源의 動員에 더 의존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다른 중요한 특징은 地方主導의 강조, 精神的 誘因, 個別이 아닌 集團體制에서의 物質誘因, 農村의 役割, 教育과 社會良識의 重要性을 강조한 점이며 이것이 소련이나 東歐의 物質均衡(material balance) 위주의 模型과 크게 다른 點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sup>(15)</sup>

社會엔지니어링(social engineering)의 입장에서 본 中共經濟模型에 있어서의 分析方法을 좀더 상세히 살펴 보자.<sup>(16)</sup> 「毛主義」는 思想이며 社會分析技法이기도 하다. 그 특징은

(1) 社會變動의 動態的 關係를 중시하며 마르크스理論의 틀속에서 實用的인 면을 강조한다.

(2) 헤겔의 辨證法的 矛盾속에서도 「反의 습」을 중시한다.

(3) 經驗과 勞動을 강조하는 知識論(theory of knowledge)을 제시한다.

(4) 大衆政治論(theory of mass-line)을 知識論과 결부시킨다.

소위 大躍進運動 당시의 中共經濟學의 內容은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다.

(1) 經濟法則은 目的函數를 포함하되 人間の 適應性(human response)을 중시한다.

(2) 人間資源의 質은 教育과 經驗을 통해 改善될 수 있다.

(3) 經濟分析은 經濟目的에 부합할 때에만 의미가 있다.

(4) 人間の 適應性이 效率의 이라면 經濟目的은 一般大衆의 希望을 대변해야 한다.

(5) 이러한 人間資源이 있는 한, 기타 資源의 制限은 經濟成長政策의 수행에 큰 阻礙을 초래하지 않는다.

(6) 所得水準을 向上시키기 위해서는 個人所得의 年間增加와 現代技術 및 大規模社會組織을 통한 教育과 이에 따른 貯蓄이 장려되어야 한다.

(7) 社會의 또는 心理的 障礙要因도 經濟成長에 阻礙을 줄 수 있다.

(8) 中央集權的 經濟決定의 效果는 制限的이며 地方參與가 바람직하다.

(9) 이미 알려진 資源보다 숨겨진 資源의 開發이 중요하며 計劃의 役割은 均衡달성에 있지 않고 새로운 資源의 開發에서 오는 不均衡을 利用하고 統制하는 데 있다.

(15) A. Nove and D.M. Nuti eds., *Socialist Economics*, Penguin Education, 1972, p.489.

(16) J. Gray, "The Chinese Model: Some Characteristics of Maoist Policies for Social Change and Economic Growth," *L' Est*, Milan, No.2, 1971.

(10) 여기서 選別的 開發보다 同時開發이 필요하다.

(11) 地域開發에 있어 技術의 選擇(choice of techniques)이 중요하다.

위에서 中共經濟模型의 特徵을 나열하였지만 中共에 있어서의 經濟分析方法은 한마디로 人間資本과 未開發資源을 중시하는 社會經濟的 接近法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VII. 資本主義經濟體制와의 比較

위에서 우리는 社會主義(廣義의) 經濟體制下에서의 經濟學方法論을 여러모로 檢討해 보았고 이로써도 어느 정도 社會主義와 資本主義經濟體制間의 經濟分析上的 특징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 章에서는 異質經濟體制에 있어서의 經濟分析方法論을 서로 비교하여 兩方法의 類似點과 相異點을 더 명백히 부각시켜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社會主義經濟學의 本質부터 설명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마르크스以後 마르크스體系와는 獨立的으로 社會主義經濟學에 대해 言及한 學者가 세 사람 있었다. 비이저, 파레토, 바로네가 그 사람들이며 이들은 社會主義에 同調하지는 않았지만 純粹經濟理論의인 측면에서 社會主義論者들이 제시하지 못했던 社會主義經濟理論을 일찍부터 전개하고 있었다. 이들 오스트리아學派의 學者들은 經濟行爲의 根本的인 核心을 천착하기 위하여 로빈슨 크루소經濟의 模型을 사용하는 버릇이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價値概念이나 費用, 收入 등이 資本主義經濟에만 특별히 有用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一般的인 經濟理論로서 어떤 經濟에서나 모두 適用될 수 있을 것이므로 中央集權的인 計劃經濟에도 마찬가지로 適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一例로 로빈슨 크루소가 最大滿足을 얻기 위해 有限한 資源을 配分・投入하려 할 때, 즉 資源을 자기 滿足의 目的으로 轉換시킬 때의 어떤 法則을 찾으려고 할 때, 로빈슨 크루소經濟는 自由競爭的인 資本主義에서 價格이 수행하는 機能과 同一한 어떤 「轉換係數」로 특징지워질 것이다. 社會主義經濟下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할 수 있고 最大滿足을 얻자면 역시 각 消費財에 대한 限界效用이 모든 사람에게 同一하여야 하고 生産도 모든 生産手段을 技術的으로 最適의 狀態로 組織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또한 모든 生産手段의 限界價値生産性(the marginal value productivity)은 모든 用途에 同一하거나 最大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은 經濟行爲에 관한 一般的 論理를 찾자면 그의 副產物로서 지연히 社會主義經濟理論이 탄생하게 된다는 것이었고 이 點을 처음으로 분명히 한 사람이 비이저였다.<sup>(17)</sup>

(17) F. von Wieser, *Natural Value*, 1st German ed., 1889.

파레토는 비이저보다 더 명확히 또 자세히 이 점을 밝혔으며 其實 現代社會主義經濟理論의 創始者로 불리워질 수 있었다.<sup>(18)</sup> 그러나 바로네가 하나의 論文에 종합적으로 더 잘 정리하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는 바로네가 더 많이 알려져 있다.<sup>(19)</sup> 이 후 랑게와 러너(A.P. Lerner)가 이를 더욱 발전시켰다.

바로네의 論理는 다음과 같다. 그는 알라스의 一般均衡接近法으로 資本主義經濟體制의 自由競爭條件下에서 성립되는 經濟均衡을 서술하는 函數體系를 제시한 다음 社會主義經濟에 대해서도 類似한 函數體系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資本主義經濟에서의 所得은 다른 變數와 相互 聯關되면서 決定되고 生産과 分配가 同一過程의 表裏인데 반하여 社會主義經濟에서는 別個의 分配問題가 存在한다고 말하였다. 換言하면 社會는 제일 먼저 別途의 規定, 예를 들어 憲法으로 個人의 所得과 相對的 占有率을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中央政府나 生産省(Ministry of Production)을 設置하여 經濟過程을 管理하고 計算單位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個人은 特定의 分量을 받아 자기의 趣味에 따라 자유로이 消費하거나 將來의 消費를 위해 프리미엄을 받고 貯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消費財에 대한 需要函數와 勞動 및 貯蓄의 供給函數를 도출할 수 있고 이러한 函數나 技術의인 知識에 따라 生産省은 消費財와 投資財의 適正量을 生産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獨裁的인 社會主義經濟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非獨裁的인 體制에서도 消費者主權原則(the principle of consumer's sovereignty)은 同一하다고 말할 수 있다. 어떠한 社會主義經濟體制이든 個人은 그들이 실제로 원하는 量만큼 갖지 않고 專門家나 官僚가 各個人이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量만큼 所有할 수 있다는 것만이 다를 뿐이다.

바로네理論의 要諦는 어떤 中央集權的 社會主義經濟體制에 대해서도 唯一解가 존재하는 函數體系가 存在한다는 것이고 完全自由競爭體制에서와 같이 最大値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換言하면 純粹論理에 관한 한 社會主義的 計劃은 妥當하고 行政的 浪費나 不合理性을 이유로 배척될 수는 없으며 政治的 選好나 偏見으로 經濟分析을 흐리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全部이며, 純粹自由競爭經濟下에서와 같이 純粹計劃經濟下에서도 理論은 고도로 抽象化되어 문의한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덜 非實際的이라 할 수 있다. 理論으로 可解的인가 또는 不可解的인가 하는 문제는 實際로 資本主義體制보다 社會主義體制가 더 能率的인가 하는 問題와는 別個의 것이며 後者는 純粹理論으로서의 해결되지 않은

(18) A. Bergson, "Socialist Economics," *The Survey of Contemporary Economics*. H.S. Ellis ed., 1948.

(19) E. Barone, "The Ministry of Production in the Collectivist State" in F.A. von Hayek ed., *Collectivist Economic Planning*, Routledge & Kegan Paul, 1935, pp.247-90.

實際的인 問題에 속하는 것이다. 마아살 이래 公共政策으로 純粹自由競爭機構를 改善할 수 있음에 대한 理論的인 論爭은 이제 사라졌고, 지금은 政治的 및 行政的 組織이 效率的인가 아닌가로 決定될 수 있다 할 수 있을 뿐이다.

위에 말한 세 學者의 所論은 純粹經濟理論과 分析方法은 經濟體制에 상관없이 모두 適用될 수 있다는 것이고 특히 限界分析技法은 有效하다는 結論을 얻고 있다. 단 分配와 消費에서만은 接近方法을 달리 할 뿐이라는 것이다.

後期마르크스 經濟學에 의하면, 스타파(P. Sraffa)의 理論에서 出發한 現代商品生産理論의 技法(the tools of modern commodity-production theory)을 사용한 後期마르크스政治經濟學이 과연 마아살의 限界分析方法을 利用한 需要・供給分析을 融合할 수 있는가 함은 아직도 큰 論爭點으로 남아 있다.<sup>(20)</sup>

이 論爭은 처음에는 검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었었다. 먼저 마아살의 需要・供給分析은 現代 neo-Marxian이나 neo-Keynesian들의 공격의 적이 되었던 利潤率 및 價格과 아무런 關聯없어도 唯一解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利潤을 資本家の 待期(waiting)의 代價로 보았지만 이것은 需要・供給의 分析과 큰 상관없이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論爭은 이후 後期마르크스主義者들에 의해 완전히 묵살되었다. 後期마르크스經濟理論의 需要函數에는 完全競爭的 均衡의 現代的 商品生産模型이란 있을 수 없고 需要函數를 포함시키면 模型의 解가 너무 많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었다. 또 마아살의 需要・供給分析이 實存하는 表面的인(surface) 經濟現象과 共存할 수 있는지도 疑問이었고 결국 마아살의 需要・供給分析은 實用的인 理論(operational theory)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되고 말았다. 물론 「供給과 需要의 힘」은 어떠한 經濟體制에서도 무시할 수 없고 어떠한 經濟理論에서도 妥當視되는 것이다. 需要와 供給의 힘을 計劃的으로 구명하는 것은 어떠한 社會에서도 經濟政策을 定立하는데 필요하며 經濟分析의 道具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꼭 구명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상의 몇가지 이유때문에 後期마르크스主義者들에게는 지금 그리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같이 보여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兩經濟體制下에서의 經濟學方法論의 相異點은 貨幣的인 側面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中央計劃經濟의 貨幣와 支拂측면의 特性을 살펴보자.

일부 東歐社會主義諸國이 市場機能을 살리려 하고 있으나 根本的인 特性은 변함이 없다. 리베르만의 보너스計劃도 마찬가지이며 모든 經濟改革은 社會主義經濟의 教科書의 模型에

(20) E.K. Hunt and H. Sherman, "Value, Alienation and Distribution," *Science and Society*, Spring, 1972, pp.29-46.

의 가일층의 接近을 시도할 뿐이다. 즉 中央政府가 實物로 표시된 生産目標을 설정하고 計劃을 세운 뒤 各企業의 投入과 產出을 결정한다는 것은 貨幣의 論議에서도 不變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社會主義經濟에서는 모든 計劃이 實物(material balances)로 표시되므로 貨幣의 機能은 合計와 計測을 위한 計算의 共通單位(numéraire)에 그침이 원칙이다. 資源의 配分은 中央計劃에 따라 실시되고 價格機構에 의해 수행되지 않는다. 모든 價格은 政府當局이 정하고 賃金率과 個別企業의 總俸給費用도 엄격히 통제됨이 보통이다. 특히 消費者價格이나 生産者 간의 移轉價格은 별로 변하지 않는 것이다. 社會主義諸國의 모든 貨幣的 플로우는 生産計劃에 의해 영향을 받고 直接 統制를 받으며 市場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信用市場이나 資本市場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대신 政府의 豫算이 生産物의 分配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生産物의 投資 및 消費에의 配分 등 모든 微視的인 決定은 모두 政府豫算에 포함되어 있으며 豫算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支拂플로우와 通貨計算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다. 通貨(currency)는 政府(會社포함)와 國民(賃金生活者와 個人所有의 약간의 企業포함)간의 모든 支拂에 사용되고, 실질적으로 消費支出은 모두 이 通貨로 이루어진다. 消費者에 의한 購買力移轉은 商品과 用役의 供給에 맞도록 計劃되고 貯蓄計定과 通貨의 退藏만이 貨幣資產(financial assets)의 축적을 위해 허용될 뿐이다. 반대로 企業과 公共機關 및 政府간의 支拂은 銀行帳簿상의 移轉으로 처리된다. 社會主義經濟의 均衡條件의 維持와 成長目標의 達成은 實物資源의 適正計劃에 의존하며 결코 貨幣的 需要와 貨幣 및 資本의 費用이나 有用성에 영향을 미치면서 진행되지 않는다. 모든 計劃이 實物로 짜여지고 있으므로 貨幣의 所有란 資源에 대한 絶對的 支配權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個人은 消費財를 사용할 뿐이지 個人用資產의 所有는 엄격히 통제되게 된다.

이상으로 미루어 計劃經濟에서의 通貨政策의 機能은 資本主義的 自由競爭體制와는 판이함을 알 수 있다. 社會主義經濟에서도 어느 곳과 같이 經濟政策의 基本目標은 物價構造의 歪曲없는 適正成長率의 달성이며, 貨幣供給, 信用 및 資金플로우를 豫測하는 것도 西方측의 微視的 豫測과 동일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目標달성을 위해 通貨政策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에서는 두 經濟는 완전히 다르며 資本所有, 經濟構造와 政治 및 社會哲學의 근본적 差異를 반영하면서 구체화되고 있다. 즉 資本主義經濟에서의 通貨政策은 市場經濟의 變動에 탄력적으로 또 계속적으로 적응하는 것이나 共產主義經濟에서의 通貨政策은 總괄적인 通貨計劃(financial plan)에 포함되어 정기적으로만 변경될 뿐이다. 소련의 經濟學教科書나 論文을 보면 信用이나 貨幣의 기능에 대한 論議는 찾아보기 힘들다. <sup>(21)</sup>



消費측면에서도 兩體制의 接近方法은 相異하다. 資本主義經濟에서는 市場機能에 의해 消費者主權(consumer's sovereignty)이 보장되나 社會主義經濟에서는 中央計劃當局의 손에 달려 있음은 이미 言及한 바와 같다. 즉 前者에는 多數의 消費者選好函數(the multiple system of individual preference function of consumers)가 적용되고 後者에는 經濟計劃者의 唯一한 國家選好函數(the single state preference function)가 타당시 된다는 것이다. 요즘 소련의 新數理經濟學派가 이 點에 어떤 改革을 요구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需要보다 費用을 중심으로 계획을 짜고 있으며 生産이 消費者의 保護에 잘 適應하지 못하고 있음이 상례이다. 資本主義經濟에서도 消費者는 自身들을 保護하는 組織을 이제서야 겨우 구성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共產主義經濟에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오직 앞으로 都賣業者의 역할을 수행하는 階級을 만들어 消費者를 만족시켜 주는 方向으로 나아감이 더 바람직할 뿐이다.<sup>(22)</sup> 市場調査만해도 資本主義經濟에서는 家庭主婦들의 消費패턴을 찾아내는 것인데, 社會主義經濟에서 역시 그들이 진실로 무엇을 요구하는가, 의장과 品質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生産混合이 規模經濟와 趣向간의 均衡에 맞도록 어떻게 調整되어야 할 것인가를 찾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現實적으로 無視되고 있음이 보통이다. 社會主義經濟에서 計劃이 문자 그대로 잘 실행되면 消費者主權이 지켜질지 모를 것이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 消費者主權은 計劃立案者의 桌上에서 無視되어 버려지게 될 것이다. 이 모든 消費의 現實에 비추어 社會主義經濟體制下에서의 消費에 관한 分析方法은 資本主義經濟와 상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끝으로 지금까지의 論議를 한번 整理해 보자. 社會主義와 資本主義經濟體制에 있어서의 經濟學研究方法論은 슈케터의 분류에서와 같이 넓은 의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類似하다 할 수 있다.

(1) 經濟史, 理論, 政治經濟學, 統計學, 數學, 計劃經濟學 등으로 模型을 정립한다.

(2) 均衡理論, 巨視 및 微視分析, 投入產出分析, 線型計劃(最適值算定) 등을 사용한다.

이러한 方法은 다 같이 適正成長과 安定을 追求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나, 그러나 資本主義經濟에서와는 달리 社會主義(廣義로)經濟에서는 財産의 私有化와 利潤追求를 위한 市場經濟原理가 아니라 財産과 生産手段의 社會化, 經濟의 計劃化 등으로, 能力이 아니라 必要에 따라 消費할 수 있는 共產社會를 理想化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規範의인 틀 속에서 자

(21) G. Garvy, "The Monetary System and the Payments Flow," *Money, Banking and Credit in Eastern Europe*,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1966.

(22) J. Robinson, "Consumer's Sovereignty in a Planned Economy," *On Political Economy and Econometrics: Essays in Honour of Oskar Lange*, Warsaw, P.W.N., 1964, pp.513-21.

연히 經濟學研究方法도 달라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는 다음과 같은 分野를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 (1) 價値 및 資本理論(勞動價値, 利子, 賃金 등 포함)
- (2) 貨幣理論
- (3) 分配理論
- (4) 消費理論

이외에 國際經濟學에서도 社會主義經濟는 閉鎖經濟를 상정하고 不兌換性, 兩者主義와 差別主義로 표시되듯이 國際分業의 原理를 인정치 않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國際開發戰略과 投資基準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工業化가 덜된 中共이나 기타 社會主義國家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開發理論과 分析技法이 다 같이 有用할 수 있을 것이고 重化學工業, 技術의 移轉, 吸收와 擴散, 에너지, 農村開發, 資源, 公害에 관한 分析方法은 異質體制를 막론하고 다 같이 類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分析方法 중 중요한 地位를 점하고 있는 마아살流의 需要供給分析은 계속 論議의 對象으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 VIII. 結 言

所得이 上昇되고 經濟가 情報產業이 高度化될수록 社會主義이든 資本主義이든 兩異質經濟體制는 비슷한 目標, 즉 社會 및 個人의 厚生增大를 위해 運用되기 마련이다. 다 같이 經濟成長, 安定과 自立 및 所得均分の 유토피아를 指向하는 입장에서는 經濟學의 對象과 分析方法도 결국은 類似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 社會主義國家에서도 規模의 經濟, 外部經濟, 最適, 效率性 또는 彈力性이란 用語가 많이 쓰이듯 資本主義國家에서도 最適이니, 潛在價格 등이 가장 중요한 經濟術語로 등장하고 있고 費用/便益分析, 게임理論, OR, 活動分析, 情報理論(information theory) 또는 不確實性 등도 體制여부를 막론하고 다 같이 有用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勞動集約의이니 資本集約의 產業 등도 마찬가지로 널리 共用되고 있다. 經濟現實(物+人)속에 內在된 論理와 一般성을 찾는 것이 經濟理論이고 經濟目標에 效率의으로 接近하는 方案을 찾는 것이 經濟政策 또는 經濟計劃인 한 兩體制에 있어서의 經濟分析方法도 결국은 相異性보다 類似性이 더 많은 쪽으로 기울어질 수 밖에 없게 될 것이고 특히 두 體制가 같은 方向으로 收斂(convergence)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趨勢는 더욱 강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